

## 바울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 새관점 비판을 중심으로

김동수

### 1. 서론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혁주의의 성경적 근거를 공격하고 종교개혁의 당위성마저 의문을 가지도록 만드는 위험한 도전은 소위 말하는 바울의 새관점 (New Perspective on Paul)입니다. 바울의 새관점학파는 루터나 칼빈같은 종교개혁자들의 바울의 칭의론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왜곡함으로써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새관점은 하나님의 은혜에 바탕을 둔 칭의론을 부정하고 바울의 칭의론을 행위구원론적 칭의론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으로 의로와지는 것은 법정적으로 선언된 것이 아니며 최종적 칭의는 개개인의 삶을 바탕으로 최후 심판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최후심판 때의 칭의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하고 우리는 선행으로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새관점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완성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의 전가(imputation of righteousness)를 부정합니다. 이신칭의론을 행위구원론으로 대체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적 죄사함의 의미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새관점은 우리의 행위에 기반한 성화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여 신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든 것과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구원보장(salvific security)을 부정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바울의 새관점의 구원론은 카톨릭교회의 공로구원론의 유사형이며 이는 도덕적 삶을 구원의 방법으로 여기는 신인협동론(synergis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구원론의 가르침을 떠난 신학적 입장으로써 개혁주의 교회가 엄히 경계해야 되는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 2. 바울의 새관점

1977년 E. P. Sanders는 그의 책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주의에서 일세기의 유대주의는 율법주의가 아니었고 은혜의 종교였다고 주장합니다.<sup>1</sup> 그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아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 진입됨(getting in)과 순종으로 머무름(staying in)으로 요약되는 이 종교적 패턴을 언약적 율법주의

<sup>1</sup> E. 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A Comparison of Patterns of Relig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covenantal nomism)라고 부릅니다.<sup>2</sup> 그는 바울이 유대주의가 은혜의 종교임을 알고 있었지만 다만 기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대주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바울서신의 해석에 있어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 이 일곱개의 서신만을 바울의 저작으로 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구원론의 중심은 믿음으로 의롭게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울의 성화론은 칭의론에 근거해 있지 않고 바울의 신비주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sup>3</sup> 그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제시하기 위해 인간의 곤경이라는 개념을 가정하고 이 문제의 해결자로서 예수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가진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참가주의적 종말론 (participationist eschatology)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sup>4</sup> 그는 바울 해석에 있어서 볼트만의 개인중심적 해석을 배격하고 슈바이처의 바울의 그리스도-신비주의론의 프레임 채택했습니다.<sup>5</sup> 그는 선택과 언약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를 유대주의속에서 사회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임스던(James D.G. Dunn)은 1982년 맨체스터대학에서 행한 맨슨기념강연에서 샌더스의 이 이론을 바울의 새관점이라고 명명했습니다.<sup>6</sup> 그는 새관점의 해석의 프레임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이 이론이 종교개혁적 해석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바울이 일세기 유대주의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고 마틴루터가 바울을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합니다.<sup>7</sup> 바울은 일세기 유대주의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제의적 율법주의(cultic legalism)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여 그들이 유대의 의식법(ceremonial laws)을 지킬 것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주의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가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유대주의의 의식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다분히 세대주의적 구원론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up>2</sup> Ibid., 422-428.

<sup>3</sup> Ibid., 439.

<sup>4</sup> Ibid., 552.

<sup>5</sup> Ibid., 434-37.

<sup>6</sup> James D. G. Dunn, "The New Perspective on Paul," *Bulletin of the John Ryland's Library* 65 (1983): 95 -122.

<sup>7</sup> Idem, "Justice of God: A Renewed Perspective on Justification by Faith", *JTS* 43 (1992): 1-22. 던은 그 이후의 그가 쓴 책에서 자신은 루터의 이신칭의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칭의론에서 간과된 부분을 밝히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The New Perspective on Paul* [Grand Rapids: Eerdmans, 2007], 23).

던과 거의 동시에 비슷한 이론을 내놓은 학자가 있는데 성공회 주교인 N.T. 라이트 (N. T. Wright)입니다.<sup>8</sup> N.T. 라이트는 샌더스가 한 비교종교학적 바울 연구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sup>9</sup> 그러나 그는 샌더스와 던이 바울이 일세기의 유대주의를 언약적 율법주의로 이해했다고 제시하는 점에 동의합니다.<sup>10</sup> 그는 이 학자들과 발맞추어 바울의 신학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해석해서 교회에 보편적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가르치지 않았고 루터가 바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바울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의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이고 바울의 진정한 의의 개념은 공동체적인 개념으로서 교회론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sup>11</sup> 즉 칭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교회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종말적 구원은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미래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sup>12</sup> 이러한 그의 주장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의의 전가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sup>13</sup> 그리고 그는 칭의와 성화가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저작에서는 바울의 칭의가 죄용서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sup>14</sup> 그러나 그는 여전히 칭의의 사회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놓고 죄용서의 측면을 부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샌더스, 던, 라이트는 각각 그들 고유의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샌더스는 바울이 일세기의 유대주의를 기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방하고 참가적 종말론을 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던은 바울은 일세기 유대주의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었고 바울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는 문턱을 낮추고자 그들이 유대주의의 민족적 표인 할례법, 안식일법, 음식법 등의 규례를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라이트는 개신교의

<sup>8</sup> 워터스는 라이트가 복음의 역사성, 예수님과 바울의 역사적 신학적 연속성, 신약신약의 정당성을 방어하는데 두드러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를 환호하는 많은 젊은 복음주의자들이 그에게 호감을 가지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워터스는 이들이 그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저술은 교회에 트로이의 목마가 되었다고 개탄합니다 (Guy Prentiss Waters, *Justification and the New Perspectives on Paul: A Review and Response* [Phillipsburg: P&R, 2004], 198).

<sup>9</sup> N. T. Wright, "A Fresh Perspective on Paul," *Bulletin of the John Rylands Library* 83 (Spring 2001): 22.

<sup>10</sup> N. T. Wright, *What Saint Paul Really Said* (Grand Rapids: Eerdmans, 1997), 19.

<sup>11</sup> N. T. Wright, *Justification: God's Plan & Public Vision*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9), 79-108.

<sup>12</sup> Wright, *What Saint Paul Really Said*, 45-46.

<sup>13</sup> *Ibid.*, 100, 102. 존 파이프는 이를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John Piper, *The Future of Justification: A Response to N. T. Wright* [Wheaton, IL: Crossway Books, 2007]).

<sup>14</sup> N.T. Wright, *Paul: In Fresh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9).

이신칭의론을 공격합니다. 그는 바울의 의의 개념을 언약적으로 해석하면서 믿음은 개인을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며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새관점학과 학자들의 주장에 있어서 상이점과 함께 유사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개인선택론(individual election)을 부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해석의 프레임으로 유지합니다. 둘째, 칭의는 하나의 은유이며 성화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슈바이처의 주장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이스라엘민족에게 유효하며 바울의 이방인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이스라엘의 구원역사 프레임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해석의 패러다임은 세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은밀히 셈족주의(Semitism)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세 카톨릭교회의 구원관에 세대주의 옷을 입힌 것으로서 개혁주의 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음주의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파는 하나님의 주권적 택자예정과 복음을 통한 유효한 부르심과 성령을 통한 믿음의 보전을 바탕으로 한 구원의 확실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프레임속에서 개인이 믿어 언약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도덕적인 삶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신인협동설(synergism)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새관점은 세대주의 바람을 타고 전세계에 부는 이스라엘 회복운동과 함께 학계와 교회에 깊이 퍼져있는 신학적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바울의 새관점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하는 신학자는 김세윤교수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바울의 새관점에 대해 비판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sup>15</sup> 그는 던을 비판하면서 바울의 칭의론은 그의 다마스쿠스 회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세기 유대주의의 언약적 율법주의에는 행위주의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후 바울의 새관점을 비판하는 입장을 떠나 새관점의 해석의 프레임을 그대로 수용하여 요즘에는 새관점의 언약적 율법주의는 바울의 칭의론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sup>16</sup> 즉 바울의 새관점이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맺어지고 행위로써 그 언약관계를 유지한다는 이해는 믿음으로 신자가 되고 순종과 행위로서 의로와진다는 바울의 구원론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김세윤은 바울의

<sup>15</sup> Seyoon Kim, *Paul and the New Perspective: Second Thoughts on the Origin of Paul's Gospel* (Grand Rapids: Eerdmans, 2001); 이의 한글판은 김세윤, *바울신학과 새관점* (서울: 두란노, 2002).

<sup>16</sup> 그는 이 입장을 처음 제시한 캠브리지대학 교수 모나 후커(M. D. Hooker)에게 크레딧을 돌립니다 (김세윤, *칭의와 성화*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13], 44-45).

칭의론이 회중의 상황에 따라 형성된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칭의론은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의 제의적 율법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사용한 신학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케제만의 칭의의 개념을 수용하여 칭의는 근본적으로 주권의 전이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sup>17</sup> 마귀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된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순종하며 삶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칭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주장하는 이중적 칭의론의 기초입니다. 즉 칭의는 법정적 칭의와 관계적 칭의가 있는데 전통적 칭의론은 관계적 칭의의 측면을 무시했기 때문에 윤리가 등한시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관계적 칭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순종으로써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신자들이 계속 믿음으로 그 언약적 관계속에 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 재림때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의 칭의는 완성되어 의인으로 확인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을 얻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관계속에 서 있는 것을 바울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롬 1:5; 16:26). 칭의에는 구조적으로 믿음의 순종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칭의개념에 순종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고 이와 함께 칭의를 바탕으로 순종과 성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종과 거룩한 삶의 메커니즘을 성령을 통한 예수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롬 6-8 장; 갈 5:16-6:16; 엡 4:17-5:21).

### 3. 칭의와 성화의 관계 (김세운)

김세운은 칭의가 법정적 개념과 관계적 개념을 가지고 있듯 성화도 믿음을 가질 때 씻어짐의 성화와 회복된 관계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성화로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는 롬 6:19 절에서 바울은 현재적 칭의와 성화는 동일한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sup>18</sup> 그는 성화도 믿음과 세례로 인하여 그리스도인 됨의 시점에도 적용되고, 다른 한편 칭의도 믿는 자들이 회복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속에 서서 하나님/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의로운 삶)을 내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성화를 칭의로부터 근본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칭의는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의 지킴 요구에 맞서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할 때

<sup>17</sup> Ibid., 84-86.

<sup>18</sup> Ibid., 180-81.

주로 사용하는 범주라고 말합니다.<sup>19</sup> 즉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도) 율법의 행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덕입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회복되어 "의인"되고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주의자들의 도전은 없는데, 우상 숭배와 음행 등이 심각한 문제들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는 바울은 그들을 "죄"라는 법정적 언어로 해석하기 보다는 "더러움" (impurities)과 "부끄러운 행위들" (shameful acts) 같은 의식적 언어로 해석하고 (cf. 롬 1:18-31), 그들에 대항하여 같은 복음을 "성화"의 범주로 선포한다고 말합니다.<sup>20</sup>

고린도전서에서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숭배와 음행 등을 염두에 두고 성화의 언어를 칭의의 언어와 함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주로 "칭의"의 범주로 설명하지만, 1:18-32 절에서 그려낸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와 음행 등 "더럽고", "부끄러운" 행위들을 염두에 두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의 언어를 삽입하여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화는 칭의의 구조속의 현재적 삶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동의어적 어휘이지, 칭의와 구조적으로 분리된, 칭의 다음에 오는 구원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sup>21</sup> 칭의를 믿는 자 된 순간부터 현재를 넘어 최후의 심판 때까지의 구원의 전 과정을 포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그것을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론에 의거하여 믿는 자가 된 순간에만 적용하고, 그 후에 "성화"를 논하는 식으로 하면, 칭의의 현재적 과정 (곧 전통적인 신학이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 등한시되어 윤리(의로운 삶)가 없는 칭의론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sup>22</sup> 그러나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론이 윤리없는 삶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인이 무법주의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미성숙한 신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sup>23</sup> 그리고 관계적 칭의론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된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천주교의 행위주의적 구원교리가 천주교신자들이 더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sup>19</sup> Ibid., 182.

<sup>20</sup> Ibid.

<sup>21</sup> Ibid., 180-81.

<sup>22</sup> Ibid., 78-80.

<sup>23</sup> 이런 해석을 김세윤은 성경을 바르게 공경하지 않는 해석으로 폄하합니다 (Ibid., 270). 그러나 그가 중시하는 하나님나라에 대한 공관복음 저자들은 교회내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고. 마태 22: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Charles W.F. Smith, "The Mixed State of the Church in Matthew's Gospel" *JBL* 82 (1963): 153. Also, Günther Bornkamm, "Enderwartung und Kirche im Matthäusevangelium," in G. Bornkamm, G. Barth, and H. J. Held, *Überlieferung und Auslegung im Matthäusevangelium* (WMANT1; 2d ed.;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61), 17.

김세윤은 바울의 성화론의 근본은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막 10:45 절을 기독교론과 윤리론에 적용하여 성화의 삶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세윤은 바울의 새관점이 등한히한 예수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바울의 새관점의 오류를 극복합니다. 즉 하나님나라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칭의에서 죄용서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새관점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는 칭의의 "아직"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의의 전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그는 N.T. 라이트의 견해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칭의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는 복음의 기독교적 측면(롬 1:3-4)과 구원론적 측면(롬 1:16-17)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예수의 하나님나라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의 하나님나라는 윤리적 측면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sup>24</sup>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곧 제자로서의 살기라는 것입니다. 칭의의 완성에 있어서 순종/행위를 강조함으로써 그의 칭의론은 이미와 아직의 불연속성을 내포합니다. 이에 따라 그는 칭의는 필연적으로 성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칭의는 성화의 "이미"의 측면과 닿아 있고 이는 성화의 현재적 측면이나 미래의 측면과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sup>25</sup> 그는 칭의와 성화는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성취의 과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개혁주의 전통에서 칭의와 성화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양자는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의 바울의 칭의론에 대한 해석이 바울의 구원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죄의 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김세윤은 죄와 율법과 육신과의 메커니즘을 통해 현재 칭의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 수 밖에 없다는 바울의 성화론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선한 삶, 순종하는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작동하고 있으며, 그것은 현재 진행되는 칭의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성화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칭의의 필연적 결과, 즉 이미 성취된 구원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sup>24</sup> 김세윤, *칭의와 성화*, 93-107.

<sup>25</sup> 참고. 존 머레이(John Murray)는 성령을 통해서 칭의와 함께 주어지는 성화를 결정적 성화(definitive sanctification)라고 부릅니다.

김세윤은 우리의 마음은 마귀와 성령의 싸움터로서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의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sup>26</sup> 이는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가 예수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는 의지를 가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롬 6:18). 본질적으로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롬 7:22, 25). 그리고 진실된 신자들은 자신의 자범죄나 마음으로 짓는 죄로 인해 괴로와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부르짖습니다 (롬 7: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하는 바울의 부르짖음은 바로 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롬 7:24).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이 마귀와 성령의 싸움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가 율법을 이용해 우리 육신에서 역사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롬 7:20,21,23) 우리가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롬 12:2). 결론적으로 김세윤이 이해하는 바울의 칭의개념은 바울의 구원론에 있어서 서술형(indicative)과 명령형(imperative)을 혼합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서술형에 바탕을 두고 명령형을 사용하지 이 양자를 혼합한 칭의개념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항상 교리적 가르침을 준 다음 접속사 “그러므로”를 사용해서 윤리적 가르침을 이어서 주고 계십니다. 이는 성화가 칭의와는 다른 것이며 성화는 칭의의 필연적 결과로 따라오는 삶의 형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성화를 현재적 칭의로 규정하는 것은 칭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법정적 선언이 단회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즉 그의 유보된 칭의론 혹은 포괄적 칭의론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법정적 칭의론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sup>27</sup>

#### 4. 예정과 중생

바울의 칭의론과 관계된 중요한 가르침은 예정론과 중생입니다. 칼빈은 신자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sup>28</sup> 칭의는 성령께서 택자에게 오셔서 중생을 일으키신 결과 일어나기 때문에 예정이 없는 칭의는 불가능하고 칭의가 없는 구원예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sup>26</sup> 김세윤, *칭의와 성화*, 194.

<sup>27</sup> Ibid., 190-93.

<sup>28</sup>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eabody, MA; Hendrickson, 2007), III.22.5.

축복을 통해서 성령의 촉발(quickenings)로 “하나님의 의”에로 새로와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sup>29</sup> 중생은 성령을 통한 거듭남으로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유발합니다.<sup>30</sup>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딤후 3:5).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딤후 3:6).<sup>31</sup> 이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셨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롬 5:5). 따라서 중생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믿음과 칭의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sup>32</sup> 성령에 의한 중생은 창세전에 택하신 택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하시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통해서 교회의 멤버가 된다고 주장하는 새관점주의에는 중생의 교리가 부재합니다.<sup>33</sup> 이는 그들이 예정구원을 부정하는 것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바울의 새관점학과 학자들은 예정론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종속된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샌더스는 볼트만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예정은 인간의 결정에 달려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바울이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말합니다.<sup>34</sup> 던도 예정을 언약관계를 위한 집단적 개념으로 보고 구원론적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예정은 은혜로 되지만 구원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sup>35</sup> N.T. 라이트도 바울의

<sup>29</sup> Ibid., III.3.8-9. 켈빈은 중생을 회개라고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III.3.9). 이 점에서 벌코프는 켈빈의 중생을 “회심과 성화를 포함하는 인간 갱신의 전 과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39], 466; recited from 박해경, “켈빈의 중생론”, 고신대학교 개혁주의 학술원, 33 [<http://kirs.kr/data/calvin/calvin081.pdf>]). 그러나 켈빈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영적 출발점을 중생으로 제시하며 에스겔서 18:31 절을 인용하며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III.3.6).

<sup>30</sup> John Calvin,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I.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rans. W. J. G. McDonald; eds. D. W. Torrance & T. 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89, reprint), 148-49. Indebted to 이환봉, “칼빈의 돌연한 회심(*subita conversio*)과 그 역사적 의미” 고신대학교 개혁주의 학술원, 5 [[https://kirs.kr/data/calvin/calvin\\_a031.pdf](https://kirs.kr/data/calvin/calvin_a031.pdf)]).

<sup>31</sup> 김세운은 사람이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칭의와 성화*, 178). 그의 칭의론에는 중생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관점학과 학자들도 성령의 오심을 통해 일어나는 중생과 믿음의 유발이라는 측면을 간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sup>32</sup> Calvin, *Institutes*, III.3.9.

<sup>33</sup> Waters, *Justification and the New Perspectives on Paul*, 196.

<sup>34</su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446-47.

<sup>35</sup> Dunn, *The New Perspective on Paul*, 77.

예정에 관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구속적인 개념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sup>36</sup> 김세윤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개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sup>37</sup> 그는 신자의 구원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얻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순종이 신자의 공로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종말적 칭의를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엡 2:8). 신자의 구원에 그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작용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갈 5:4). 바울은 로마서 8:29 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하시오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롬 8:30). 롬 8:29 절에서 미리 아신자라는 표현은 예지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야다를 기초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없이 사랑하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그들을 복음을 통하여 유효하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았는데 유효하게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한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sup>38</sup>

## 5. 바울의 칭의론

바울은 칭의론을 가르치면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으로써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롬 1:2). 복음은 근본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롬 1:17; 엡 2:8; 빌 3:9). 이 말씀은 하박국 2:4 절과 창세기 15:6 절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의는 하나님의 의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 대속적 죄사함(substitutionary atonement)을 바울은 롬 3:25-26 절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sup>36</sup> <https://www.patheos.com/blogs/euangelion/2013/10/n-t-wright-on-election-in-pfg/>

<sup>37</sup> 김세윤, *칭의와 성화*, 190. Idem, “칭의와 성화”. CGN Seminar (2013년 11월 4일부터 2014년 2월 10일)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jmTcXgJLXBZuOoTzt\\_h3VtZsB-MV72aH](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jmTcXgJLXBZuOoTzt_h3VtZsB-MV72aH))

<sup>38</sup> Michael Horton, *For Calvinism* (Grand Rapids: Zondervan, 2011), 117.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칭의는 죄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게(*ἄμωμος*)되었다는 것이 그 핵심 개념입니다 (엡 1:4; 5:27; 빌 2:15; 골 1:22; 유다 1:24; 계 14:5).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의를 주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는 신분을 그 사람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sup>39</sup> 이 개념은 창세기 15:6 절과 하박국 2:4 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 장에서 이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롬 4:3). 그가 의롭게된 것은 그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고 불경건한 자 였을 때 였다고 말씀합니다 (롬 4:5). 따라서 그는 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선물(*χάρις*)을 받은 것입니다(롬 4:4).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롭다고 하셨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칭의의 핵심은 죄용서를 받는 것이라는 점을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롬 4:6-8; cf., 시 32:1-2). 바울은 로마서 4 장에서 모세오경과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신칭의를 증명함으로써 이신칭의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기초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던이 주장하듯이 이방인들이 유대주의전통을 따르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한 묘책이 아닙니다. 또 라이트가 주장하듯이 신자들이 언약의 공동체의 회원이 되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또 김세윤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그림언어가 아닙니다.<sup>40</sup>

만일 칭의가 성화의 다른 표현이며 그안에 순종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면 바울은 로마서 4 장에서 칭의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에 관한 아케다전통을 묘사했을 것입니다.<sup>41</sup>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sup>39</sup>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trans. & ed., John Owen; Grand Rapids: Baker, 1996, reprint), 186.

<sup>40</sup> 김세윤, *칭의와 성화*, 57.

<sup>41</sup> Akedah (אֶקֶדָה, "binding")는 창세기 22 장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한 것을 가리킵니다.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진실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롬 4:19-20). 그리고 그의 믿음은 죽은 자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묘사하면서 그의 믿음이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롬 4:24-25). 신약시대의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속죄를 이루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곧 칭의입니다 (롬 5:15-17).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아담의 원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 만드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김세윤은 칭의의 관계적 개념이 로마서 5:1-11 절에 나타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롬 5:1-11 절 에서 바울은 칭의에 수반된 영적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적 평화, 하나님의 사랑, 구원, 화목, 아담의 원죄의 소멸입니다. 이 문단에서 바울은 순종을 칭의에 포함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롭다하심의 결과 부수된 삶의 형태지 종말적 칭의의 조건이라고 제시하는 구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 장에서 칭의의 결과 따라온 성령의 은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화의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칭의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롬 6:3-4).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바 되어 새생명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며 또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 우리 죄의 몸이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신학에 있어서 구원의 서술적(indicative) 측면입니다. 김세윤도 믿음과 순종의 삼위일체적 완성을 언급하면서 믿음과 순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sup>42</sup> 그도 신인협동설(synergism)은 잘못된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칭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합니다.<sup>43</sup> 성도는 그 행위에 따라 최후 심판때 구원을 받을지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의 시점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주장은 그도 신인협동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sup>42</sup> 김세윤, *칭의와 성화*, 194.

<sup>43</sup> *Contra Piper, The Future of Justification*, 96.

빌립보서 2:12-13 절이 그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바울이 12 절의 기초를 13 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의의 신분을 부여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순종이 칭의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은 종말적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 따라오는 거룩한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 6. 바울의 성화론

칭의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음을 통한 우리의 원죄의 씻음이며 이 사실은 바울의 구원론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칼빈은 칭의는 신앙을 지탱하는 중심적 경첩 (hinge)이고 모든 경건의 요약이라고 말했습니다.<sup>44</sup> 곧 칭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을 유발하는 영적 기초입니다. 이와함께 바울은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롬 6:3). 칭의와 우리의 예수님과 연합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칭의없는 예수님과 연합은 없고 예수님과 연합없는 칭의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롬 6:6). 이는 우리 죄의 몸이 죽었다는 개념과 같습니다. 고후 5:17 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안에서 새피조물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를 생산하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의와 함께 우리에게 이 육신 즉 죄의 공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즉 예수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롬 7:4). 이것은 우리가 더이상 율법을 바탕으로 정죄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롬 7:5). 이를 바탕으로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롬 5:11). 우리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며 더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롬 6:12)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우리

<sup>44</sup> Calvin, *Institutes*, III.11.13, III.16.7.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롬 6:13). 이는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더이상 법아래 있지 않고 은혜아래 있습니다 (롬 6:14).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아래 살면서 이제 우리에게 전하여 준바 예수님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롬 6:17).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인 것입니다 (롬 6:22).<sup>45</sup>

바울은 롬 6:23 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모든 성화의 메커니즘의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한번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칭의가 필연적으로 성화를 가져오고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sup>46</sup> 바울은 칭의를 법정적(forensic) 개념으로 제시하고 성화를 제의적(cultic)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성화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서로 뗄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서 칭의와 성화는 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이며 순종을 “종말적” 칭의의 조건으로 삼는 공로주의적 삶을 야기하게 됩니다.<sup>47</sup>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종말 때 칭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 성화는 칭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순종과 성화는 칭의받은 신자들의 윤리적 열매이지 종말적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성화는 구원의 결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지 관계적 의미의 칭의 혹은 구원을 위한 공로(merit)가 아닙니다.

## 7.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

점진적 성화(progressive sanctification)를 이루어가는데 있어서 그 기초는 칭의이고 메커니즘은 회개이며 그 영적 동력은 성령의 힘입니다.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윤리적 완전주의(perfectionism)를 추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인정했습니다. 이

<sup>45</sup> 새관점학과 학자들은 물론이고 김세윤도 칭의의 관계적 개념이 교육되면 성화가 획기적으로 촉진될 것으로 강조만 하고 있지 로마서 6, 7 장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성화의 영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sup>46</sup> Calvin, Institutes, III.16.1. 박재은, *칭의 균형있게 이해하기: 하나님의 주권대 인간의 역할, 그 사이에서 바라본 칭의*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100-2.

<sup>47</sup> 김세윤은 오히려 신자들 중에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종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위해서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중세 카톨릭교회의 공로와 상급신학에 빠진 모습이라고 질타합니다 (*칭의와 성화*, 191-92).

견해는 죄의 재정의를 필요로 했습니다. 웨슬리는 자발적인 죄(voluntary sin)와 무의식적 죄(involuntary sin)를 구분하며 칭의된 자는 하나님께 자발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sup>48</sup> 그의 죄의 구분은 마음으로 짓는 죄의 문제를 간파하는 문제를 내포합니다. 칼빈은 회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그 효과는 중생의 성령님께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sup>49</sup> 회개는 밖으로 드러난 올바른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sup>50</sup> 칭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sup>51</sup> 진정한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울며 애통하는 것입니다(요엘 2:13; 마태 5:4; 롬 7:24; 고후 7:10-11). 이와함께 그는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써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자범죄를 회개하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sup>52</sup> 참신자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회개하는 삶으로 대표됩니다. 그 사람은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게 됩니다(롬 12:2).

바울은 성령의 능력에 기초한 성화의 메커니즘을 로마서 6-8 장에서 영적으로 세밀하게 분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롬 6:3-4 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고 말씀함으로써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화의 기초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물세례를 의미하지만 이는 성령세례를 전제하는 개념입니다.<sup>53</sup>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고전 12:3). 이 사실은 바울이 칭의와 더불어 일어난 은혜를 롬 5:5 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말씀한데서 증명됩니다. 또 롬 7:6 절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말씀에서 우리 성도는 성령안에서 거룩해지는 삶을 체험하며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롬 8:2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지 않고 죄의

<sup>48</sup> Laurence W. Wood, his part contributed in *Christian Spirituality: Five Views of Sanctification* (ed. Donald L. Alexander; Downers Grove: IVP Academic, 1988), 38-39.

<sup>49</sup> Calvin, *Institutes*, III.3.21.

<sup>50</sup> *Ibid.*, III.3.16.

<sup>51</sup> *Ibid.*, III.3.20.

<sup>52</sup> *Ibid.*

<sup>53</sup> 김동수, *로마서주석* (서울: 엘도론, 2013), 363-66.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롬 8:9 절에서 바울은 참신자에게 있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바탕으로 성화의 필연성을 설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롬 8:9). 따라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롬 8:26-27).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안에 살아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일 1:8). 우리는 지속적인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롬 7:22,25). 그러나 우리 지체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려고 합니다 (롬 7:23).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매일 육신에 역사하는 죄와 싸우며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 5:48). 주님께서 여기서 완전성화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부여된 천국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한 성도는 우선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구원이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딤후 3:5). 이어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여러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딤후 3:6-8). 따라서 성화 즉 거룩한 삶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신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성취되는 열매입니다. 성화는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주의에 기반한 규범적 과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반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sup>54</sup>

<sup>54</sup> 김세윤도 성화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칭의와 성화*, 203-212).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은혜를 통한 성도의 견인론을 부정합니다. 그는 참신자도 탈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견인을 위한 믿음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그의 해석에 모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 8. 구원의 확신

바울의 새관점은 종말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신자는 비로소 자신이 구원받게 될 것인지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종말적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선행을 해야되는 과제를 안고 살게 됩니다. 이웃사랑도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세기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정해놓은 의의 기준에 따라 살면서 위선이나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 신자가 구원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가지려고 연연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진정한 종말적 평화가 내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믿음의 확신의 근거를 신자의 양심의 증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sup>55</sup> 워필드(B. B. Warfield)도 신자가 자신이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외적 증거를 찾으려해서는 않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그분의 택한 자녀라는 것입니다.<sup>56</sup>

그러나 칭의를 바탕으로 점진적 성화를 이루며 사는 신자에게는 그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평화와 믿음의 확신이 지배합니다.<sup>57</sup> 실로, 칭의는 구원의 확신의 기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 장에서 성도의 견인을 설명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롬 8:1). 또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롬 8:14). 그리고 성령의 중보기도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믿음에 견고하게 됩니다 (롬 8:26, 34). 이같이 하나님의 보전(preservation)하심을 통해 환란이나 곤고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롬 8:38-39).<sup>58</sup> N.T. 라이트는 성령에 관해 말씀하는 로마서 8 장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바울의 성령론을 떠나서 바울의 구원의 확신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sup>59</sup> 그는 성령의 에너지를 가지고 신자는 도덕적 자유의지를 활용해 도덕적인

<sup>55</sup> Randall C. Zachman, *The Assurance of Faith: Conscience in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and John Calvi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7.

<sup>56</sup> Loraine Boettner,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51), 308.

<sup>57</sup> Piper, *The Future of Justification*, 98.

<sup>58</sup> 김세윤은 칭의의 관계적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 롬 8:31-39 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단락은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칭의와 성화*, 108-111).

<sup>59</sup> Wright, *Justification*, 237.

삶을 살수 있다고 주장합니다.<sup>60</sup> 그러나 도덕적 삶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며 도덕적 삶은 구원을 기대하거나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sup>61</sup> 성령은 미래의 판결이 신자가 살았던 삶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sup>62</sup> 여기서 라이트는 바울이 로마서 8 장에서 가르치는 성령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저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힘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미래에 자신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택자들 마음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의 확신을 주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때문에 초래되는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말해 성령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과 견인을 이루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김세윤도 바울이 말씀하는 성도의 견인론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는 고전 3:15 절도 이 개념을 밭잡히고 있다고 말합니다.<sup>63</sup> 그러나 그는 참신자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그가 이해하는 바울의 구원론에는 구원의 확신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개혁주의의 예정론을 배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예정론은 성도가 견인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고안된 가르침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은 성도가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개념이지 결정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sup>64</sup> 따라서 성도는 언제든지 마귀의 목소리를 순종해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sup>65</sup>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를 가지는 성도는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고 안심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만하는 사람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김세윤은 예정에 대한 심리학적 정의를 바탕으로 바울이 로마서 8:28-30 절이나 에베소서 1:3-14 절에서 말씀하는 예정론에 기초한 구원의 확신론을

<sup>60</sup> Ibid., 236.

<sup>61</sup> Ibid., 237.

<sup>62</sup> Ibid., 251.

<sup>63</sup> 김세윤, *칭의와 성화*, 262.

<sup>64</sup> Ibid., 272-76.

<sup>65</sup> Ibid., 264-69.

올바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객관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예정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 구속의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 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로 사랑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엡 1:4-5). 하나님께서 그 택자들을 보전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바울은 성령의 중요한 사역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σφραγιζ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엡 1:13).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인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보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 10:28-29). 이 인치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칭의를 받음과 동시에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바탕으로 최후 심판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속의 영원성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심에 있어서 확증됩니다 (엡 1:13).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ἀρραβών)이십니다 (고후 1:22; 5:5).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구원을 위해 아라보운(보증)으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무한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그 아들의 상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롬 8:17). 현재 성도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써 우리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령님의 능력주심하에서 성도는 성화와 견인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더할 수 있습니다.<sup>66</sup> 바울은 우리가 환란을 통해 인내를 인내를 통해 연단을 연단을 통해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롬 5:3-4). 따라서 칭의된 신자에게 환난은 배교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그들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우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권면합니다 (벧후 1:5-7). 이것은 바울이 성령의 소욕을 따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갈 5:16).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벧후 1:10).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 공로주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행위대로

<sup>66</sup> Robert A. Peterson, "Preservation, Perseverance, Assurance, and Apostasy", *Presbyterion* 22/1 (1996): 37.

최후심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롬 2:5-16; 14:10; 고전 3:11-15; 4:1-5; 5:5; 9:16-27; 고후 5:10; 갈 6:8; 고 3:14-15).<sup>67</sup>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위로써 최후심판 때 흠없는 자로 서야된다고 말합니다(고전 1:6-8; 빌 1:10-11; 살전 3:13). 그러나 최후심판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위선적인 신자들이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정적 칭의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과 모순됩니다. 따라서 바울이 롬 2:7 절에서 말씀하는 행위심판은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죄용서가 없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정한 가정적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sup>68</sup>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자에게 최후심판은 예수안에서 받은 구원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의식과 같은 절차이고 그 때 비로소 최후의 칭의가 일어나고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sup>69</sup>

## 결론

결론적으로 바울의 칭의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칭의와 나아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매일 성령의 내주하심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어있지 않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롬 7:6).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성화의 노력을 하지만 완전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탄식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성화의 정도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입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롬 8:1). 샌더스는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적이 있느냐고

<sup>67</sup> Roger E. Olson, *Against Calvinism* (Grand Rapids: Zondervan, 2011). 김세윤도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서 그의 구원론은 복음적 알미니안주의 구원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 79, 241).

<sup>68</sup> Douglas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136-38.

<sup>69</sup> Frank Thielman,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A Canonical and Synthetic Approach* (Grand Rapids: Zondervan, 2005). 개편은 믿는 자들에게 최후심판은 현재의 칭의의 열린 드러남 (open manifestation)이지 믿음에 행위를 보완하는 심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Richard B. Gaffin, *By Faith, Not by Sight: Paul and the Order of Salvation* [Waynesboro, GA: Paternoster, 2006], 98).

묻습니다. 그는 칭의는 순전히 픽션(fiction)이라고 말합니다.<sup>70</sup> 그러나 이 주장은 칭의의 법정적 개념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동반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입니다. 일례로 누가복음에서 한 죄많은 여인의 죄가 사해지는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신 것은 종말적 심판의 현재적 성취로서의 사면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눅 7:47). 그리고 칭의의 법정적 개념은 마태복음 9:2 절에서 예수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하신데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요한복음 8:1 절부터 기록된 예수께서 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이야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여인에게 법정적 선언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한 8:11). 이 선언은 요한의 이루어진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그 여인에 대한 종말적 용서의 현재적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현재적 완성 즉 구원의 이미(already)의 측면은 요한 5:24 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할 때 주동사의 시제로 과거완료형 (μεταβέβηκεν)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는 과거의 행위의 결과가 현재 계속되는 상태를 가리키며 이 점에서 이는 바뀔 수 없는 과거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칭의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 완성은 종말 심판때 될 것이며 우리의 현재의 칭의와 종말의 칭의는 밀접히 연결되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얻어진 칭의가 성화의 실패로 인해 종말때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칭의는 성화로 구현되고 성화의 열매는 구원인 것입니다.

김세윤은 우리의 칭의(구원)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음에 넘겨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이룬 구원의 사건부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성령의 도움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현재의 단계를 거쳐, 종말의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최종중보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자가 신앙의 여정속에서 불순종한 삶을 산 결과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실패로 칭의가 취소된다면 하나님의 현재의 법정적 선언이 신뢰할 수 없는 변덕스런 행위가 되고 맙니다. 김세윤이 현재의 칭의와 미래의 칭의를 연속성에서 보지 않고 불연속성에 놓고서 현재의 성화를 구원의

<sup>70</sup> E. P. Sanders, *Paul: The Apostle's Life, Letters and Thought* (London: SCM Press, 2016), 506. 이 견해는 천주교회가 루터의 칭의론을 법적 허구(legal fiction)로 매도한 것과 상응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라이트도 의의 전가를 경건한 허구(pious fiction)라고 풍자합니다 (Ligon Duncan, “The Attractions of the New Perspective(s) on Paul” <https://www.ligonier.org/learn/articles/attractions-new-perspectives-paul/>).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sup>71</sup> 이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을 부인하기 때문에 초래된 논리적 귀결입니다.<sup>72</sup>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을 입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자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sup>73</sup> 그 사람에게에는 구원의 아라보운(보증)이신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견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고전 10:13 절에 명확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실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은 성도는 계속 순종의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세윤은 최후 심판 때 우리의 칭의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보로 완성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들로 설 수 있게 되고, 그의 진노로부터 완전히 구속된다고 말합니다 (롬 5:8-10; 8:32-34; 고전 1:7-8; 살전 1:10; 3:13).<sup>74</sup> 여기서 우리 신자들의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보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주장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현재 그리스도의 증보기도는 최후 심판때 칭의의 완성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택자들이 환난때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도록 하는 택자 보전을 위한 기도입니다.<sup>75</sup> 예수님의 택자를 위한 증보기도는 성령님의 증보기도와 함께

<sup>71</sup> 그는 고전 10:1-12, 롬 11:17-24, 히 6:1-10 등의 구절이 참신자의 배교의 가능성을 말씀한다고 해석합니다 (김세윤, *칭의와 성화*, 264-69). 그러나 이 구절들은 중생한 신자들의 배교의 가능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을 작동시키려는 목적으로 경고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 대한 문법적 주석을 바탕으로 한 자세한 해석은 필자가 현재 쓰고 있는 책 *Perseverance and Falling Away in the New Testament*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up>72</sup> 놀랍게도 그는 예정과 성도의 견인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칼빈주의식으로 타락의 가능성을 부인해도 않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양자를 “논리적 긴장 가운데 함께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주장합니다 (*칭의와 성화*, 270-71). 그러나 이 주장에는 논리적 모순(contradiction)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택자를 그의 소유삼으실 목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일 택자가 배교하여 잃어버려진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character)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엡 1:4-6). 곧 하나님은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성경적 신론에 대한 도발적 견해이며,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택자들을 배교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구절과 맞지 않습니다 (엡 1:13-14; 4:30).

<sup>73</sup> Calvin, *Institutes*, III.14.6.

<sup>74</sup> 김세윤, *칭의와 성화*, 219.

<sup>75</sup> 그는 롬 8:34 절에서 예수께서 택자를 위해 증보기도하신다는 동사를 미래적 의미로 해석합니다(Ibid., 123). 그는 또 살전 1:10 절의 동사 “건지신다”도 미래의 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동사 ἐντυγχάνει 는

택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보전기도입니다 (누가 22:31-32; 롬 8:34; 히 7:25). 요한복음 17 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이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요한 17:12). 이처럼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최후 심판때 칭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칭의된 성도들의 견인과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된 법정적인 선언으로써 그것은 처음부터 완전한 칭의이며 종말에 구원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칭의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는 즉각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지 최후심판때까지 유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 현재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칭의는 종말적 칭의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어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적 칭의는 종말적 칭의와 끊을 수 없는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칭의의 필연적 결과이지 칭의에 부가된 종말적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완전무결한 작품인 것입니다 (빌 1:6). 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롬 4:2; 고전 1:29; 시편 44:8). 깊도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지혜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Soli Deo Gloria)!

## 참고문헌

김동수, *로마서주석*. 서울: 엘도론, 2013.

김세윤, *바울신학과 새관점*. 두란노, 2002.

\_\_\_\_\_, *칭의와 성화*.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13.

\_\_\_\_\_, “칭의와 성화”. CGN Seminar (2013년 11월 4일부터 2014년 2월 10일)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jmTcXgJLXBZuOoTzt\\_h3VtZsB-MV72aH](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jmTcXgJLXBZuOoTzt_h3VtZsB-MV72aH)

박재은, *칭의 균형있게 이해하기: 하나님의 주권대 인간의 역할, 그 사이에서 바라본 칭의*.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박해경, “칼빈의 중생론”, 고신대학교 개혁주의 학술원.

<http://kirs.kr/data/calvin/calvin081.pdf>

이환봉, “칼빈의 돌연한 회심(*subita conversio*)과 그 역사적 의미”, 고신대학교 개혁주의 학술원. [https://kirs.kr/data/calvin/calvin\\_a031.pdf](https://kirs.kr/data/calvin/calvin_a031.pdf)

---

현재시제로서 예수께서 현재 택자들의 견인을 위해 하늘보좌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가리키며, 동사 *ῥούμενον* 도 현재분사로서 현재 진행되어지는 일을 의미합니다.

-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39.
- Michael F. Bird, "N.T. Wright on Election in PFG"  
<https://www.patheos.com/blogs/euangelion/2013/10/n-t-wright-on-election-in-pfg/>
- Loraine Boettner,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51.
- John Calvin,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1.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rans. W. J. G. McDonald; eds. D. W. Torrance & T. 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89, Reprint.
- \_\_\_\_\_,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trans. & ed., John Owen; Grand Rapids: Baker, 1996, reprint.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eabody, MA: Hendrickson, 2007.
- Ligon Duncan, "The Attractions of the New Perspective(s) on Paul"  
<https://www.ligonier.org/learn/articles/attractions-new-perspectives-paul/>
- James D. G. Dunn, "The New Perspective on Paul," *Bulletin of the John Ryland's Library* 65 (1983): 95 -122.
- \_\_\_\_\_, "Justice of God: A Renewed Perspective on Justification by Faith", *JTS* 43 (1992): 1-22.
- \_\_\_\_\_, *The New Perspective on Paul*. Grand Rapids: Eerdmans, 2007.
- Richard B. Gaffin, *By Faith, Not by Sight: Paul and the Order of Salvation*. Waynesboro, GA: Paternoster, 2006.
- Michael Horton, *For Calvinism*. Grand Rapids: Zondervan, 2011.
- Seyoon Kim, *Paul and the New Perspective: Second Thoughts on the Origin of Paul's Gospel*. Grand Rapids: Eerdmans, 2001.
- Douglas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 Roger E. Olson, *Against Calvinism*. Grand Rapids: Zondervan, 2011.
- Robert A. Peterson, "Preservation, Perseverance, Assurance, and Apostasy", *Presbyterion* 22/1 (1996): 31-41.
- John Piper, *The Future of Justification: A Response to N. T. Wright*. Wheaton, MA: Crossway Books, 2007.
- E. 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A Comparison of Patterns of Relig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 \_\_\_\_\_, *Paul: The Apostle's Life, Letters and Thought*. London: SCM Press, 2016.
- Charles W.F. Smith, "The Mixed State of the Church in Matthew's Gospel" *JBL* 82 (1963): 149-168.
- Frank Thielman,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A Canonical and Synthetic Approach*. Grand Rapids: Zondervan, 2005.
- Guy Prentiss Waters, *Justification and the New Perspectives on Paul: A Review and Response*. Phillipsburg: P&R, 2004.
- Laurence W. Wood, his part contributed in *Christian Spirituality: Five Views of Sanctification*. ed. Donald L. Alexander; Downers Grove: IVP Academic, 1988.
- N. T. Wright, *What Saint Paul Really Said*. Grand Rapids: Eerdmans, 1997.
- \_\_\_\_\_, "A Fresh Perspective on Paul," *Bulletin of the John Rylands Library* 83 (Spring 2001): 21-39.
- \_\_\_\_\_, *Justification: God's Plan & Public Vision*.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9.
- Randall C. Zachman, *The Assurance of Faith: Conscience in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and John Calvi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